

박영석 동문,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 1차 등정시도 다리부상 견뎌내고, 4전 5기로 성공

박영석 동문(체육교육 92졸)이 이끈 산악원정대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오르기 어렵다는 남서벽 루트를 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개척해 등정에 성공했다.

에베레스트 남서벽 원정에 나선 박영석 대장과 진재창 부대장, 신동민, 강기석 대원은 지난 20일 오후 6시15분(한국시간)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고 전해왔다. 특히 박영석 대장은 1차 등정 시도 때 당한 왼쪽 다리 부상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대는 현지 시각으로 20일 0시 40분 해발 8500m에 있는 마지막 캠프를 출발, 정상 공격에 나섰다. 350m 높이를 오르는데 14시간 20분이 걸릴 만큼 험난했다. 원정대는 분당 2리씩 산소를 공급

받으며 4시간 반의 사투 끝에 8600m 절벽을 넘어섰다. 3년에 걸친 도전으로 올해 원정을 시작한 지 63일만에 성공이다.

박영석 원정대가 이번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함에 따라 한국은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에 처음으로 '코리안 루트'를 갖게 됐다. 또 20여 개에 달하는 에베레스트 등반 루트 가운데 '박영석 루트'가 새로 생기게 된 것이다.

이번 남서벽 루트는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에베레스트에 한국인이 개척한 최초의 길이며 영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것이다. 박 대장은 1991년과 1993년 두 차례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2007년 세 번째 도전에선 오희준, 이현조 대원을

잃는 사고도 겪었다. 지난해 9월 에도 네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악천후로 중간에 내려와야 했다. 박 대장은 2005년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데 이어 다

시 한 번 세계 산악계에 한 획을 그었다. 원정대는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 박영석 동문은?

박영석 동문은 1963년 11월 2일 서울 출생으로 1992년 우리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했고, 2003년에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박영석 동문은 (주)골드윈코리아이사, (사)한국산악회이사, 한국대학산악연맹이사, (사)대한산악연맹 등반기술 위원을 맡고 있다.

박영석 동문은 세계최초로 6개월간 히말라야 8,000m급 5개봉을 척디등정하고 세계최초로 1년간 히말라야 8,000m급 6개봉으로 최다등정을 달성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1993년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무산소 등정했다. 2005년 4월 30일에는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에베레스트 '코리안 루트' 개척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m)에서 가장 험한 남서벽 등정로에 한국인이 개척한 첫 길이 뚫렸다. 남서벽 원정에 나선 박영석(체육92졸) 원정대는 지난 20일 오후 6시15분(한국시간)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 사진은 정상에 오른 박영석 대장 사진제공=박영석 에베레스트 원정대

화려한 5월의 축제, 목덕대동제 끝나 학생들 환호 속에 순조롭게 진행, 차별성 없는 축제 아쉬워

지난 한 주 동안 동악을 뜨겁게 달궜던 목덕대동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제41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광란'을 주제로 삼아 동국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거듭났다. 하지만 매년 비슷한 형식의 축제진행과 지나친 상업화, 학내 위생 문제 등은 개선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대동제 기간 내내 총학을 비롯해 각 단과대, 과 학생회, 동아리 등이 팔정도도를 비롯한 학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팔정도에서는 비빔밥 페스티벌, 100부 토론과 동

국 Green Day를 비롯한 대동제 행사가 열렸다. 또한 단과대, 학과, 동아리 별로 각종 놀거리 행사를 열고 먹을거리를 판매하기도 했다. 대운동장에서 19일 백상 응원대제전, 20일 풀+1 콘테스트, 21일 광라 페스티벌로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갔다. 백상 응원대제전은 백상응원단과 한국대학원연합회(KUCA), 건국대학교 등 외부 응원단들의 화려한 응원과 초대 가수 휘성이 응원전을 빛냈다. 20일에 열린 풀+1 콘테스트는 평소 학생들이 숨겨왔던 독특한 끼를

표현해 학생들이 만드는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되새겼다. 21일 열린 광라 페스티벌은 당일 내린 비로 인해 대운동장에서 분관 중앙당으로 자리를 옮겨 열렸다. 광라 페스티벌에는 동아리 피어리스턴, 몽게구름, 음샘밴드 등과 스윙제어, 부부밴드 등이 출연했으며, 초대가수 채연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또한 이번 축제에는 국문과에서 조정래 석좌교수, 총대의원회에서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조승수 국회의원 강연회를 열어 유익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대동제가 열릴 때 마다 지적됐던 상업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몇몇 외부 기업이 백상응원전, 과 주점 등에 협찬하는 대신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불황에도 섭외비용이 비싼 연예인 공연을 진행하는 관행과 홍보부족, 주점운영 이후 쓰레기 투기 문제 등은 개선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관련기사 2, 8면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이갑수(문창4) 군, 후배 위해 헌혈증 전달

군 복무 중인 이갑수 군(문창4)이 지난 13일, 같은 과 후배를 위해 헌혈증을 모아 보내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갑수 군은 지난달 15일 문예창작학과 카페를 통해 강민경(문창1) 후배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연을 접하게 됐다.

이에 군 복무 중이던 이갑수 군이 군부대에서 약 50여장의 헌혈증을 보내온 것이다. 현재 강민경 양은 가능한 한 많은 수혈이 필요한 상태로, 수혈과 치료가 잘 이뤄지지만 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황이다.

이갑수 군은 "후배가 아프다는 글이 카페에 올라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 본 것"이라며 후배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편지와 함께 학교로 헌혈증을 보내왔다.

이갑수 군은 문화적 재능을 인정받아, '합리적인 광기'라는 소설로 동대 문학상의 소설 부문 장원을 수상한 바 있다.

베트남 달랏대와 식물바이오자원 개발 추진 라 바 덩 총장, 우리대학 방문해 양교간의 교류 다짐

베트남 달랏대학교의 라 바 덩 총장과 음연 반 켓 농림대학 학장이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우리 대학을 방문해 양교의 발전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식물생명공학과 조준형 교수의 초청으로 우리 대학과 식물바이오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한국정부가 저개발국가의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수혜국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또한 지난날 한국이 받은 지원을 다른 나라에게도 적용해 동반자로서 국제 교류를 이

룬다는 취지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우리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ODA 국제농업 협력 사업은, 작년 베트남 달랏대가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개발, 국내 농기구의 해외진출 등 우리나라의 농업에 도움이 되는 전략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양교간 인적 교류와 달랏 지역의 생명공학 기술이전, 전문가 초청연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대학을 방문한 베트남 달랏대의 라 바 덩 총장은 "양교가 이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라 바 덩 총장은 지난 22일 오영교 총장과 만남을 가지고, 바이오기술 공동 연구와 학생·교수 교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를 했다. 56개학과 학부생 2만 6천명 규모의 달랏대는 해발 1,50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동서양의 다양한 식물 원종이 분포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 자원의 보고이다. (로) miro@dongguk.edu

제245회 이사회, 오늘(25일) 개최

제245회 이사회가 오늘(25일) 오후 3시 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신입 이사장 선출을 비롯해 08년도 회계 결산보고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3일에 열린 제 244회 이사회에서는 '이사해임 및 이사장 선출'을 안건으로 다루려 했으나 성원 미달로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자동 유예됐다.

지/면/안/내

2 반복되는 대동제 악습

3 GTEP 사업단

4 미래사회와 대학 ③ - 미래사회와 대학 인프라

5 C40 관련 시민단체 세미나

8 목덕대동제 이모저모

동대신문의 자발적 구독료 납부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대신문이 자발적 구독료 납부운동을 추진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납부 운동이란 건전한 대학언론 육성과 언론인 양성을 위해 학내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구독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대신문은 1년 구독료를 1만원으로 정하고 우편을 통해 구독하고 계신 독자들을 대상으로 구독료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동대신문은 1950년 창간돼 현재 지령 1476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은 매회 5,000부 이상을 동문과 전국의 고등학교, 도서관, 장학재단 등에 발송하고 있으며 학교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많은 동문들에게 학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령 2000호를 바라보는 동대신문이 보다 많은 독자와 만나고 미래의 언론인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1. 연간구독료 : 1만원
- 2. 입금계좌 : 제일은행 114-20-734228 (예금주 ; 동국대학교)
- 3. 입금시 성명과 졸업연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회전무대

등록금 본전 뽑기

○...노는 날 많으면 좋겠다면 칠판 앞에 있는 양복 입은 교수들 바라보고
 교수에게 소리를 높여 질러라! 우리에게 휴강! 휴강을 달라! 휴강을 통해 늘리는 우리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는 우리 하지만 본전 뽑는 법 모르는 우리 알려줄까? 초 간단 단 번는 법 수업을 들으면 본전은 뽑는단다.

학생 급구

○...길동아, 여기 만해관 **인데 빨리 좀 와라. 조금 있으면 강연회 시작인데 사람이 없어. 뭐? 수업이라고? 할 수 없지, 알겠어...
 실질적인 수요자 없는 강연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연회는 학생 모시기 대작전?

책노래

○...책아 책아 과제인 책아 이 내 눈에 쌓인 책아
 책 지정한 이내 교수님 구할 길 막막한 이내 책아
 동대 학생 무수하니 지정 도서 구할길 없어
 책 구하는 이내 눈에 책이 있는 도서관 없네
 돈도 없어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책 못 구해 한하는데 그런 사람 많건만
 이런 현실 모르는 무상불청 원망스러운 교수님의 지정도서

캠퍼스 나눔 도전행사 내일(26일) 개최

참사랑 봉사단이 주최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2009 캠퍼스 나눔 도전" 행사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팔정도동 동국관에서 개최된다.
 'CC=LOVE'라는 주제로 캠퍼스에서 기부와 소비, 모금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표이다. 행사 대상은 학생, 교수, 직원, 동문등 본교 구성원 전체이고 지역주민도 참가할 수 있다. 모금된 금액은 지구촌공생회, 조계종복지재단과 국내의 교육 및 급식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기부 및 모금 행사를 통해 대학에 새로운 나눔 축제 문화를 형성하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나눔·봉사행사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홍겨움의 뒷모습 대동제 기간 동안 각 학과 학생회에서 주점을 열었다. 학생들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밤새 축제를 즐겼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무지막지한 쓰레기 더미일 뿐이다. (세) viva5@dongguk.edu

조정래, 홍세화, 조승수 특강 정계, 문학기 경험 바탕으로 조언해

지난 목曜대동제 기간 동안 조정래 석좌교수,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조승수(북한학과 박사과정) 국회의원이 우리대학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국어국문학과에서 주최한 조정래 석좌교수의 특강은 지난 20일 5시 중앙도서관 2층 AV실에서 열렸다. 특강은 '훌륭한 문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조정래 석좌교수는 "자기만의 문체가 없으면 문학은 형성될 수 없다"며 "자기만의 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소설가가 되려면 300편의 중·단편과 200편의 장편을 읽고 나서 펜을 잡으라"고 말할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 분야에서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한편 총대의 원회와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동국대 모임'이 주최한 시리즈 강연회 제1탄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의 강연회가 지난 20일 명진관 A303호에서 열렸다.
 홍세화 위원은 "교육 정책이 기득권에 장악돼 인문사회학이 시험을 위한 학문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계속 주입식 교육으로 기득권층의 제도와 정책을

암기하고 길들이게 하고 있다"며 주체적 자아형성을 위해 책을 읽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혈오정지에 대한 반감과 이기주의의 팽배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경력과 영 어공부만 하고, 정치문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하고 있다"면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시리즈 강연회 제2탄 조승수 의원 강연회는 지난 21일 만해관 B256호에서 열렸다. 조 의원은 "환경이 상품화되어 그것에 반발하여 나타난 운동이 생태운동"이라며 한국사회가 생태운동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조 의원은 한국사회가 당면하는 과제로 평등(분배), 평화, 생태를 꼽았다. 그 중 생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았는데 생태적 관점으로 최소한의 성장과 최소한의 개발만을 하며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현실정치 운동에 도입해야 하고, 진보정치 역시 생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수구보수와 넓은 진보를 넘어서서 생태를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주점, 쓰레기 ... 축제 악습 언제까지

학생들의 축제 목曜대동제, 점차 본래 의미 퇴색돼

동악을 뜨겁게 달궜던 목曜대동제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매년 지적됐던 축제의 상업화, 반복된 축제 형식, 주점 운영 후 쓰레기 투기는 예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아 학내 구성원들의 아쉬움을 샀다.
 올해 대동제는 지난해에 비해 외부 기업의 협찬이 줄었으나 올해에도 립트, 오션월드, 메가박스 등 외부 기업들이 백상응원전과 동아리 주점 등에 협찬을 했다. 대운동장에서 열린 공연의 경우 학교 예산 3,9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공연의 경우 학교 지원만으로 부족할 경우 협찬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외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협찬 상품이나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협찬받은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돌+콘테스트, 집단지성 퀴즈대회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대동제 기간 동안 열렸지만,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예인 초청공연이 축제의 중심이 됐다. 연예인 초청공연은 축제의 흥을 돋우고 행사가 많은 인파를 응집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축제가 학생들의 공연보다 연예인 공연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공연보다 연예인 공연에 더 관심을 가지는 등 학생들이 만들어어나가는 대동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예인 섭외에 있어 학생회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학교 측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축제행사가 대부분 먹거리

판매와 주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대학 축제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처음으로 대학 축제를 경험한 A양(문과대1)은 "색다른 대학축제를 기대했지만 술 먹는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주점 이외에 즐길 수 있는 행사라곤 불꽃선전지기, 게임대회 같은 단순한 게임에 불과했다. 각 단과대에서 준비한 행사들도 매년 반복되는 소재와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해 축제의 의미를 반감시켰다. 단과대 행사를 체험한 B군(바이오시스템대1)은 "사전준비가 부족해 행사가 재미없었다"며 "같은 학과, 단과대끼리만 노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대학의 축제란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주점을 운영한 뒤 발생한 쓰레기

처리 문제도 개선되지 못했다. 대다수의 주점에서는 전날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술병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발생한 쓰레기는 학교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몫이다. 우리대학 환경미화원인 이규두 씨는 "술병이 깨진 채 땅굴고 있고 교내 곳곳이 토사물로 범벅되어있다"며 "축제기간은 하루하루가 고역"이라고 말했다.
 대동제는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시간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악습으로 인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목曜대동제의 본래 의미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중구청과 지역 교육사업 발전 협약체결 방과후 학교 멘토링 사업, 지역연계 입학사정관제

우리대학과 중구청이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중구청이 방과후 학교 멘토링 사업 협력대학으로 우리대학 사범대를 지정하는 것과, 지역연계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추진하는 것이다.
 방과후 멘토링사업은 사범대 재학생이 멘토(선생)이 돼 중구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교육과 일본어·중국어·한문·컴퓨터·축구·태권도 등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 리더십 개발 등의 학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진로지도와 리더십 함양을 위해 법조인, 우주인,

게임프로그래머 등 명사를 초빙, 강의를 듣고 모의재판, 게임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연극·영화·뮤지컬 공연 관람과 함께 등산·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더할 예정이다.
 중구청과 체결한 지역연계 입학사정관제는 중구 지역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효행심이 있거나, 봉사정신이 강해 모범이 될 학생을 중구청장이 추천, 우리 대학에 지역연계 입학사정관 제도로 입학시키는 제도다. <은> tjwleod36@dongguk.edu

<p>동악로에서</p> <p>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p>		<p>학문의 평가</p>
<p>조선일보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된 15일, 경영평가 팀의 분위기는 밝지 않았다. 조선일보 대학평가는 지난 15일에 보도 됐다. 이번 평가는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조선일보는 평가의 취지에 대해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과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 대학평가의 기준을 상세히 뜯어 보면 연구 능력이 전체 비율에서 60%나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졸업생 평가, 국제화가 각각 10%인 것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이다. 그 60% 중에서 또 30%가 학계평가다. 학계평가는 '아시아 대학의 연구에 대해 잘 아는 2417명의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탁월한 대학을 자국 내에서 최대 10개, 자국 아닌 아시아권에서 최대 30개를 뽑아 달라'는 질문에 대해 보내온 응답을 합산'해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아시아 대학의 연</p> <p>구에 대해 잘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왜 2417명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또 대학들을 최대 10개, 30개씩 뽑는 것도 변별력이 흐트해질 가능성이 크다. 온 좋게 계속 최대 10개 안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대학과 아깝게 못 들어간 대학과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까. 이러한 점들을 백번 양보해도 대학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만으로 30%나 되는 학계평가를 평가한다는 건 무리다. 이같이 조선일보가 대학 평가에 설문조사 방식의 학계평가 비중을 현재와 같이 큰 비중으로 존속시킬 경우 앞으로 조선일보 대학평가는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성만 지표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들이 대학의 학문을 평가하는 진정한 척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 그 대학의 순위가 어떻든 대학 학문이 일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 게 전제되어야 이런 식의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p>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예비졸업상담 시행

2009학년도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졸업 상담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돕고자 합니다. 3학년 학생은 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생** :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 상담기간** : 2009년 5월 18일(월) ~ 5월 29일(금) - 10일
- 상담시간** : 09:30 ~ 18:00
- 상담장소** : 이과대학 학사운영실
- 상담 신청방법**
 가. 이과대학 홈페이지 (<http://science.dongguk.edu>)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예비졸업상담 시행』에 학생들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신청 ※ 수업 공강 시간에 신청.
 나. 접수기간 : 2009. 5. 6(수) ~ 5. 15(금) - 10일간
 다. 학과별 그룹 상담신청 가능

※ 현재제 4학년 2학기에 예비졸업사정을 하게 되면 졸업이수 학점에 착오가 생겼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따라서 3학년부터 예비졸업상담을 시행하여 정규학기 졸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과대학학사운영실(☎2260-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 대 학

“자기주도학습지도서” 수강생 모집

사회교육원에서는 중앙일보 조인스닷컴과 초,중고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워 줄 “자기주도학습지도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최근 대학입시의 화두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기주도학습” 이론과 실제 현장 실무를 온라인 수업(60시간)과 실습(출석수업 20시간)으로 3개월 간 학습하게 되며,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꿈 !! 동국대 사회교육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대상** :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
- ◆ **교육문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Tel:2260-3730)
- ◆ **수강방법** : 온라인수업(60시간/2개월)+출석수업(20시간/1개월) 총3개월
- ◆ **수강료** : 660,000원
- ◆ **신청기간** : 2009년 6월1일~6월 30일,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http://dulife.dongguk.edu/>)
- ◆ **개강일** : 2009년 7월 1일 ~

◆ 자세한 사항은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Tel:2260-3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9-2학기
학부/일반대학원 재입학 신청 안내

2009-2학기 학부/일반대학원 재입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재입학 대상자**
 가.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나. 미등록 제적생
 다. 성적경고 누적 제적생(2007년 8월 31일 이전 제적생)
 라. 자퇴생
 (단, 징계처분받은 학생과 2005-1학기 이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입학 후 성적경고받은 제적생은 재입학 신청 불가)
- 모집내역별 재입학 가능 인원수**
 가. 학부 비사범계학과(*학년, 학과 구분 없음) : 정원 내학생-280명, 정원의학생-39명 (*정원의학생 : 외국인, 장애인, 농어촌, 실업계고교 등 특수입학생)
 나. 학부 사범계학과
 (1) 정원내학생 - 교육학과 2명, 국어교육과 1명, 역사교육과 1명, 지리교육과 2명, 수학교육과 6명, 가정교육과 1명, 체육교육과 6명
 (2) 정원의학생 - 지리교육과 1명(기타학과 가능인원 없음)
 ※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의 재입학 안내에 대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학년별 인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반대학원 - 석사 39명, 박사 19명
- 재입학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신청 기간 : 2009.5.25(월) ~ 6.5(금)
 나. 신청장소 :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 학생상담센터(본관2층)에서 상담 후, 재입학 신청서에 상담 확인 도장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4. **제출서류**
 가. 재입학신청서 1부
 나. 학업이수계획서 1부
 다. 학적부 1부
 라. 성적증명서 1부
 마. 재입학 심사위원 소견서(심사위원용) 1부 (가, 나, 마 : 학교홈페이지 → 서울캠퍼스 → 학사/생활 → 양식함 → 학적 → No. 5, 6, 7에서 다운로드)

5. **재입학 결과 발표** : 2009. 7. 16(목)

6. **등록 기간** : 2009. 8. 17(월) ~ 8. 19(수) / 본교 지정 은행

7. **유의사항**
 가.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나. 재입학 학기(2009-2학기) 일반휴학은 불허
 다. 재입학의 기존 학적 및 상담 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라. 2007년 8월 31일 이후 성적경고누적제적생은 제적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마. 성적경고 누적으로 제적되어 2005-1학기 이후에 재입학한 학생이 재입학 후 성적경고 1회 더 받으면 '재입학 후 성적경고 제적' 처리되며 더 이상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바. 폐설된 야간강좌 학과 학생은 주간강좌 학과로 재입학 신청
 사. 재입학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심사위원과 면담 및 재입학 심사위원 소견서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해야함.

8. **문의** :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학 사 지 원 본 부

젊은 무역가들의 열정으로 세계인 사로 잡은 'GTEP 사업단' 정 스토리

“외국어 · 경험 · 실무 삼박자 갖춘 글로벌 인재를 우리!”

의성 흑마늘로 2백만불 계약 성사 ... 현재 해외 홍보기업만 모두 7개

흑마늘에 '흑' 자도 모르던 싱가폴 상인들이 어떻게 200만 달러의 수출계약에 사인했을까. GTEP(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사업단은 의성 흑마늘을 상품으로 싱가폴 국제박람회에 참가해 200만 달러 상당의 계약과 3천달러 상당의 현장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07년 6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 무역협회가 후원하는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에 우리대학이 선정됐다. 총 19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서울지역 대학은 우리대학을 비롯해 숭실대와 경희대다.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사업팀은 비영리단체로, 기업을 발굴해 해외 마케팅을 하기까지 학생들이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본 사업단이 해외로부터 혹은 국내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사업단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관심을 갖고 해외 마케팅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단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출 가능 상품 해외서 기업 대신 마케팅”

지난 10월, 우리대학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2기 사업단의 사업 1팀은 의성흑마늘영농조합과 MOU를 체결하는 등 200만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일종의 '소규모 무역회사'가 대학 안에 자리 잡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의성흑마늘 관련 홍보책자를 검토중인 단원들

GTEP은 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의 줄임말이다. 사업단명에서 느껴지듯 아시아지역에 대한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으로, 핵심 무역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이 GTEP사업단의 최종 목표다.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중심형 글로벌무역인 양성 및 '무역 1조불 조기달성'이라는 국가 목표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상원(국제통상4) 단원은 “국내의 수출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어떤 것이든 외국에 매치 메이킹(Match Making)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사업단이 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GTEP사업단은 국내의 상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 실무에 대한 강의 경험은 물론 해외 기업을 상대할 때 필요한 외국어 습득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사업단 자체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와 같이 UN이 정한 4대 세계어에 속하는 언어들은 필수로 교육 받고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인 영어는, 단원들에게 기본이다. 단원을 선발할 때 영어가 선 발 조건인 것은 아니다. 모두 해외 마케팅을 하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영어 실력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김화영(국제통상4) 단원은 “4개국어 외에도 몽골어도 배우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언어를 완전히 섭렵하면 좋겠지만, 비즈니스 쪽으로 초점을 맞춰 필요한 부분부터 배워나가 고자 한다”고 말한다. 단원들 사이에서 모든 언어는 제 2의 비즈니스 외국어로 통하는 만큼 언어 문제는 철저히 준비 중이다.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순수하게 학생들로만 구성돼 있다.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학업에 충실해야하는 학생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다. 김화영 단원은 “사업단 일도 많고, 들어야 할 특강에, 배워야 할 언어, 또 학교 공부까지 소화해야 할 것이 많다”며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았지만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이에 성상원 단원은 “우리 단원들의 이러한 도전정신 탓에 단원들의 성적은 모두 최상”이라며 웃어 보인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경험들을 토대로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기도 했다. 수업 때 이뤄지는 팀들의 과정과 비슷한 개념이다. 의견이 충돌할 때는 무조건 ‘우선가치’를 생각한다. 단원들의 주관성은 일단 배제시키고 객관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한다.

“시작 당시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

국내 중소기업 선정,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단원들은 모든 과정에 직접 관여한다. 한 때 단원들은 ‘동국대 GTEP’



싱가폴에서 개최된 해외 전시회 당시 GTEP단원들이 홍보부스를 꾸미고 있는 사진

을 중소기업들에게 홍보하고자 한 학기 내내 매진하기도 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회사측에서는 동국대 GTEP 사업단을 잘 모르는 상태였다. 또한 사업단의 경력도 없던 때라 기업 발굴의 과정에 가장 애를 먹었다.

서로가 믿고 맡기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대학만의 특성과 전략을 반영한 홍보책자 배포에 더욱 신경을 썼다. 홍보물을 메일로 보내기도 했지만, 직접 일일이 기업을 찾아다니며 배포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당시의 어려움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힘들게 고생한 탓에 현재는 그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싱가폴에서 열린 ‘뷰티아시아 2009’ 해외 전시회에서는 의성흑마늘영농조합의 흑마늘 엑기스와 통흑마늘을 가지고 참가해, 독특한 홍보전략 및 부스 디자인으로 외국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 참가자 중에는 유일하게 어깨띠를 착용해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사업단과 상담을 마친 바이어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의미에서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의성흑마늘의 샘플을 자체 제작한 소형 쇼퍼백에 담아 나눠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의 계약과 80여건의 상담 실적, 3천 달러 상당의 현장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GTEP 사업단의 이러한 성과는 입소문을 타며 현재는 기업에서 직접 판매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실제로 의성흑마늘영농조합 실적을 올린 이후, 의성흑마늘업체의 직원들이 타업체의 상품을 부탁해 왔고, 덕분에 (주)청아퍼의 고춧가루 판매도 우리대학 사업단이 맡게 됐다.

단원들은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일을 끝마친 후 외치는 구호가 있다. “Go for trade, GTEP is

coming”. 그들의 꿈과 열정으로 일궈낸 사업들, 사업은 일사천리로 구호처럼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권 넘어 북미권 진출이 목표”

GTEP사업단의 단원들은 현재 20여명 정도다. 20여명의 단원들이 회의하고, 연구하며 작업을 진행하기에 연구실 공간은 다소 비좁다. 김화영 단원은 “외부 기업체 분들이 오시면 회의도 많이 해야 하고, MOU체결은 격식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을뻔던데 컨퍼런스 홀 같은 장소는 대관 절차도 까다롭다”고 말한다.

GTEP사업단이 아직까지 2기밖에 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GTEP사업단의 가시적 성과가 홍보될 때는 단순히 GTEP이 아닌 동국대 GTEP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된다.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시켜줬을 때, GTEP사업단에게 배분되는 수익률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액수도 아닌데다, 받은 액수는 모두 단원들의 교육적 목적으로 다시 환원된다. 결국 ‘보람’ 외에 그들의 주머니에 채워지는 실속은 없는 셈이다.

앞으로 GTEP사업단 단원들의 목표는 동아시아의 무역 전문가로, 사업단 목적대로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많다. 화장품의 경우, 해외 시장에 한류의 영향이 미치면서 한국 제품들의 인기가 상당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흑마늘 사업처럼, 외국인들에게 흑마늘의 효능을 소개하기도 전에 냄새에 질색해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많

다. 지금으로서는 동아시아권에 국내 제품을 판촉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단원들은 미국 및 북미쪽의 진출도 바라보고 있다. 더 많은 세계권에 국내 물품을 홍보하자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GTEP사업단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홍콩과 캐나다, 뉴질랜드에 단원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들의 성향 조사 및 해외 마케팅 연구프로젝트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내년 2월 싱가폴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 ‘Natural Asia’ 참가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 그랬듯 부딪히며 배우겠다”

사업 기획부터 부스 설치 및 세팅, 바이어들 상담까지. 어떤 과정도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작업이 없다.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례다.

GTEP사업단은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학내의 사업단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율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GTEP사업단이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기업은 의성흑마늘영농조합, (주)청아퍼, LAKASA 등 총 7개 기업이다. 하지만 이제 동아시아권을 넘어 북미권으로 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한다면 담당 마케팅 기업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made in Korea’의 문구가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GTEP사업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바람처럼, 세계 속의 한국이 실현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하계 해외 집중 영어 연수 연수생 모집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교 해외 캠퍼스 DULA에서 재학생의 국제화 능력 및 외국어 실력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계 해외 집중 영어 연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연수 개요

Table with 3 columns: 구분, 내역, 비고. Rows include Country (USA DULA), Personnel (40), Duration (2009.07.06 - 08.04), and Objectives.

2. 연수(대상) 비용

Table with 3 columns: 항목, 비용 (US \$), 비고. Rows include Tuition, Accommodation, and Meal expenses.

나. 왕복항공료 : US \$1,200 내외(아시아나 항공 스페셜 할인 요금) 그룹합인이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5월말 이전에 신청하는 사람은 더 많은 할인 혜택 가능
다. 여행자 보험 : 하나투어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라. 총 연수비용 중 수업료(약 100만원)를 교비에서 지원함.

3. 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외국어교육센터로 제출
-담당자 : 외국어교육센터 과장 송민수(내선번호 : 3469)

4. 제출 기한 : 2009년 5월 26일(화) 17:00까지

5. 해외 집중 영어연수 지원 자격
가. 본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전체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나.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 본교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다. 해외연수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연수대상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학생)
라. 연수인원 초과 지원시, 일정 기준(학점, 어학 능력)에 따라 선별함
마. 대학원생(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생 모두 포함)도 지원 가능

College English 수강생 ON-LINE TEST(기말고사) 시행

2009학년도 제1학기 College English(1, 3, 5)를 수강생 여러분은 아래와 같이 ON-LINE TEST(기말고사)를 위하여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1. 접수 기간 : 2009. 5. 18(월) - 26(화)
2. 시험 기간 : 2009. 6. 1(월) - 5(금)
가. 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시간에만 볼 수가 있음
나. 시험장 입실은 시험시간 10분전까지 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 되면 입실은 불가함
3. 접수 및 진행 방법
가. 접수 : 교내의 INTERNET 환경 어디서나 가능
1) INTERNET으로 시험시간 및 장소를 선택
2) SITE : www.cattoeic.com/eslscat/dgcbt
3) 접속 : ID는 본인 학번, PW는 주민번호 뒷자리
4) 좌측 중단 온라인 모의도의 시험접수 클릭→시험일자 및 시간대 선택
나. 시험 응시 : 본인이 선택한 일자와 시간의 교내 실습실에서만 가능
1) 접속방법
① 시험 기간내 시험 장소(교내 컴퓨터실습실) 입실 → 학교홈페이지 접속 → 좌측상단 입학안내 → 기타 교육기관 → 외국어 교육센터(http://duet.dongguk.edu/) → 외국어교육센터 공지 사항 College English SITE 클릭
② http://duet.dongguk.edu/ 및 www.cattoeic.com/eslscat/dgcbt로 직접 접속
2) 접속 ID 및 PW : ID는 본인 학번, PW는 주민번호 뒷자리
3) 세부 접속 방법 : 첨부파일 참조

4. 시험일차 및 장소

Table with 5 columns: 실습실명, 위치, 좌석수, 시험일자, 시험시간. Rows list exam dates and locations like A2, B2, BSC10, G2, JE.

5. 수강생 유의사항

가. 시험 미응시할 경우 불이익 발생
나. College English 5를 수강하는 학생이 미응시할 경우 F
- 성적평가 비율 : 출석 10%, 기말시험 90%
다. College English 1 또는 3을 수강하는 학생이 미응시할 경우
- 성적평가 비율 : 출석 10%, 중간시험 45%, 기말시험 45%
- 미응시하는 경우 F 가능성이 매우 높음(60점 미만시 F)
라. F인 경우 2010년에 동일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함

기획연재- 미래사회와 대학 ③ 미래사회와 대학 인프라

융합 학문위한 오픈 캠퍼스 개념 필요

폐쇄적 운용보다 지역·사회·기업과 기능적 연계 모색해야

글 쓰는 순서

1. 미래사회의 모습
2. 미래 대학의 학문구조
3. 미래사회와 대학 인프라
4. 미래의 우리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원거리, 근거리 인식기능 2개의 전자 태그가 내장된 RFID 학생증을 가지고 들어서면 자동 출석 되는 강의실’, ‘연구실 한쪽에 설치된 카메라가 교수의 강의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다른 교실에 전송이 가능한 원격강의 시스템’, ‘교단에 설치된 컴퓨터가 교수를 인식하고 정맥 인식 장치 인증을 거쳐 자동으로 다양한 멀티 미디어 수업자료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 ‘전 세계 16개국 63개 대학을 연결해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원격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라운지...’

사이버 강좌, 학점교류 활성화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미래의 캠퍼스가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 구현됐거나, 추진중에 있는 대학 캠퍼스의 모습들이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학 인프라는 점점 고도의 정보기술이 결합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유비쿼터스 대학을 지향하며 디지털화된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터넷 통신과 이를 이용한 원격강좌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질 것”을 예언하면서 지금처럼 대학 캠퍼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수들이 교실에서 강의하는 대학 교육의 형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강의하는 사이버 대학들이 많이 생겨났다. 사이버대학은 캠퍼스라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없이 인터넷을 통해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학습하는 가상 대학이다. 통학과 같은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사생활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사이버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이버 대학’은 기존의 정규대학에 비해 수업료가 저렴하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기에 필요한 강의만 들을 수 있어 평생교육의 방식에 매우 적합한 방



▲ 우리대학 처량거리 20분 내 국내 매출 10000대 기업의 분포 현황.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산학협력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식이라고 여겨져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들도 학내에 동영상 강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대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다. 우리대학의 경우도 E-Class 강의를 통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하버드대와 MIT 등 세계적인 대학들 역시 석학들의 주요 강의를 영상과 각종 기능을 이용해 사이버 강좌로 만드는 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이버 수업을 들어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교류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일부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강좌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퍼져, 대학 캠퍼스가 소멸된다는 의견마저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대학이 학부생들의 수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각종 실험과 토론, 그리고 실습이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캠퍼스가 소멸될 것이라는 예언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제간 융합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 미래 대학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간의 토론·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이순종 교수는 “각 학문영역 내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 내에 각각의 전문 영역들이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공간이 필요하다”며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을 위해 강의실은 물론이고 복도나 휴게실, 식당과 레크리에이션을 위

한 공간에 이르기 까지 언제 어디서나 창 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남과 협력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참조)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커져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추구하는 미래 대학 캠퍼스의 모습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강조된 캠퍼스이다. 교육이 특정사회의 미래가치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 지역생활 공동체가 밀접하게 연관을 맺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대학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대학교육 인프라의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대학의 발전방향과 캠퍼스 확장방향을 캠퍼스 내에 집중하기 보다는 캠퍼스 인근지역과 외부지역의 연계성에 맞춰 지역 커뮤니티와의 동반 발전을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사립명문 대학이면서 뉴욕이라는 과밀화된 도시에 입지한 컬럼비아 대학의 사례는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컬럼비아 대학은 뉴욕시와 ‘전략적인 협력관계의 정립’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가지고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은 캠퍼스 주변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봉사,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은 이같은 지역과의 연계를 통



▲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20 문화발전 구상안'. 서울 중심에 있는 우리대학은 시 당국과 연계해 동반발전을 모색해야한다.

해 신규개발 대상지역에 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시당국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또 신규개발 대상지역에 지은 교육시설에서 캠퍼스 주변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과외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비폭력 교실 등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캠퍼스 확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는 양질의 교육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win-win 구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성 강화’라는 미래 대학 인프라 변화 추세에 맞춰 도태되지 않으려면 지리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활용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 유리한 환경이 무엇인지, 지리적 것으로 인접한 사회, 경제, 문화, 학문적 토대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 캠퍼스의 현주소

우리대학은 수도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남산의 북쪽 경사지 주변으로 서쪽으로 한옥마을, 동쪽으로 잠정단 공원에 인접해있다. 캠퍼스 동쪽 경계가 지하철 3.4호선의 환승역인 충무로 역으로, 한국 영화문화의 메카인 ‘충무로’와 직접 맞닿아 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동쪽은 장충단 길을 따라 신라호텔, 소피텔 엠베서더, 하얏트 호텔,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등의 문화 예술, 관광 인프라와 접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지리적 좌표는 단점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주변의 비싼 토지가격, 남산이라는 녹지공원 인접에 따른 개발규제와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캠퍼스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 연구시설과 복지시설 부족 등 심각한 공간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산지 경사면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장기적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지리적 강점

우리대학이 존재하는 중구-종로 지역은 대기업의 분포와 밀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형성된 도심이다.

2004년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30대 그룹사 중 17개 그룹사의 분사 또는 계열사가 동구대로부터 20분 거리 이내에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유통, 건설, 정보통신, 호텔, 해운·물류, 언론,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우수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대학이 지향해야할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도심의 특성과 평생교육, 기업체 임원이나 사원들에 대한 재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즉 과거의 폐쇄적 학문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융합적인 학문, 그리고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래 대학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문화, 관광의 기능적 연계 가능성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학교와 근접한 충무로는 과거 영화문화의 메카였다. 물론 명성이 퇴색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영화진흥위원회나 인허가 관련 부서는 주변에 남아 있다. 이를 활용해 충무로 영상센터를 재개발해 영화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에 버금가는 건물과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대학이 배출하는 풍부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영화산업과의 산학협력은 우리대학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 남대문 시장, 동대문시장, 고급호텔이 가장 밀집한 지역의 중심에 있는 우리대학은 유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외국인을 위한 동국대학교의 불교관련 ‘선센터’나 불교박물관 등을 유치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운동장과 수영장 부지의 경우 신라호텔, 국립극장, 장충단 공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남산 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려 지역연계형 캠퍼스의 전형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이면서 동시에 남산이라는 훌륭한 자연경관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새로운 외국인 주거단지 또는 커뮤니티 시설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대학이 주관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불교 강좌 및 체험교실, 각종 언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특화된 지역연계 캠퍼스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민들이 남산을 애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와 우리대학이 공동으로 캠퍼스 주변에 최첨단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 건립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시민, 동국대 학생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대학은 수도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했지만 서울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 의 명문사립 대학교들이 해당 도시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극대화 시켜온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우리대학은 수도 서울의 4대문 안에 위치하면서 서울과 역사를 함께 해온 뿌리 깊은 대학교이다. 향후 100년을 고려했을 때 우리대학은 지역사회의 동반자이자 지역발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높여 ‘오픈 캠퍼스’ 즉, 지역사회에 흡수되어 일체화된 오픈된 도심형 캠퍼스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변화하는 유비쿼터스 캠퍼스 환경을 고려해 정보통신 기반과 학교의 제반 교육과정 등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09학년도 후기 석사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	전공	모집인원
불교	불교학, 선학	00명
불교사회복지	사회복지	
생사의례	생사의례	
불교문화콘텐츠	다도·생활예절	
명상심리상담	명상심리상담	

*명상심리상담학과의 경우 편입생은 모집하지 않으며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전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격

- ◆ 석사과정
 - 국내의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자 또는 2009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일정

구분	일자	장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09.5.18(월)~6.5(금)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전형일	2009.6.11(목) 14: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앞 게시판에 공고

■ 특 점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조계종 종무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 언론인,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2-2260-3036-7 FAX 02-2260-9627
http://gsbs.dongguk.edu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야간)

2009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디지털컨버전스 전공 신설”

■ 모집학과 및 전공: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버전스전공),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

■ 모집인원: 00 명

■ 원서교부 및 접수: 2009. 5. 18(월) -- 5. 28(목)

■ 전형일시 및 장소: 2009. 5. 30(토) 10:00 본 대학원 원장실

■ 문의처: 02-2260-3733-3735(학사운영실), FAX 02-2260-3736

■ 기타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dongguk.edu) 참조

■ 특 점 · 국내 유일의 디지털컨버전스 석사과정 전공 신설

- 설립 20년 전통, 언론인, 방송인, 인쇄출판계 CEO 등 천여명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 공무원, 언론인, 군인,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각종 장학특전

* 디지털컨버전스 전공 교육목표: 디지털 기술혁명의 결과로 현대사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 놓여있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과거에는 구현할 수 없었던 양방향 서비스라는 패러다임이 보편화됨과 동시에 네트워크의 컨버전스, 서비스의 컨버전스, 콘텐츠의 컨버전스가 다양한 디지털 뉴미디어 디바이스와 채널을 중심으로 동시다발, 상호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디지털 컨버전스 전공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에 대해 각 해당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야간)

2009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포렌식 전공 신설”

■ 모집학과 및 전공: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사이버포렌식전공), 영어통번역학과 (통역전공, 번역전공)

■ 모집인원: 00 명

■ 원서교부 및 접수: 2009. 5. 18(월) -- 11. 28(목)

■ 전형일시 및 장소: 2009. 5. 30(토) 14:00 본 대학원 원장실

■ 문의처: 02-2260-3733-3735(학사운영실), FAX 02-2260-3736

■ 기타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ai.dongguk.edu) 참조

■ 특 점 · 국내 유일의 야간 사이버포렌식 전공 신설

- 직장인도 공부할 수 있는 야간 영어통·번역학과 석사학위과정 운영
- 공무원, 교직원, 군인,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각종 장학특전

* 사이버포렌식 전공 교육목표: Cyber 범죄를 억제하고 법적 정의의 해결과 관련된 법과학적 조사 기술인 Forensic 관련 지식의 고도화를 추구하며, 포렌식 분야의 저변확대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사이버 포렌식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제도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전문 연구인력, 실무 기술 인력 및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서울시, 실용적 환경정책과 시민참여 필요”

C40회의 관련해 시민단체들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현 주소’ 살펴

서울시의 환경 관련 정책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지난 18일 덕암 세미나실에서 열린 C40 관련 시민포럼에서 김운수 시장개발연구원 박사는 “시민의 참여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정책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시민 단체와의 생산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직접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며 시민 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하지원 서울시의회 환경 수자원위원회 의원은 “환경 정책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기술 위주의 정책으로 너무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첨단 절약 기술의 제품이 나타난다 해도 야기되는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해 절약 효과가 상쇄된다”며 첨단 기술 지상주의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구체적 계획 없는 무리한 목표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왔다.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국장은 “서울시는 2007년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률을 2000년 기준으로 1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며 서울시가 과도한 목표치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

는 또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 절반에 가까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전력수요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에너지 기후변화대책 전담 실행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현재 서울시의 정책들이 실속보다 너무 겉치레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같이 있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이강오 사무처장은 도시 열섬에 관한 발표에서 “육상 녹화 공사가 실속보다 겉치레에 집중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선 짙다”며 “우리나라는 10개의 육상 녹화를 할 수 있는 돈으로 디자인이 예쁜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만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고찰이 주 내용을 이뤘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세우지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도 같이 나왔다. 건축공학부 전영일 교수는 “토론들에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고 겉핥기만 하는 것 같다”며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C40는 지구 온난화의 80%가 지구 표면적의 2%를 차지하는 대도시에서 발생한다는 자각에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대도시들이 모여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논의하는 것이다. 1차 회의는 2005년 런던에서, 2차 회의는 2007년 뉴욕에서, 이번



▲ 세미나 참석자들이 부대행사로 대안 기술 중 하나인 풍력 발전기를 감상하는 모습.

에 열린 3차 회의는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는 다른 도시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 나간다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C40 회의 개최 전에 환경 관련 시민 단체들이 현재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및 현 주소를 살펴 본 것이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C40(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C40는 세계온실가스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대도시들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5년 발족시킨 세계 대도시 협의체로, 런던·뉴욕·파리 등 40개 정회원 도시와 16개 협력 회원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 22일 환경 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녹지를 없애고 초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친환경 도시’라 표방하는데 의구심을 표했다. C40 회의에서 채택한 서울 선언문이 강제력이 없는 만큼 생색만 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연재 학회 탐방 <역사교육과> 백두산

머리보다 가슴으로 움직이는 학회, 백두산



▲ 세미나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학생들.

학교가 들쭉이는 축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대어된 강의실 한 칸에선 제3공화국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백두산 학회원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토론을 주도해 나가는 학생들의 발제 논문 수준도 뛰어났다. 09학번인 윤아름, 백미진 양은 제3공화국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이고 침착한 논조

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 있게 발표해나갔다. 중간에 종종 학회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세미나는 학회원들끼리 서로 논쟁을 써가며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일관적이고 진지한 분위기를 끝까지 지속했다.

백두산에서는 한 후배에 짝 선배 두 명이 붙어 후배의 논문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후배는 이에 피드백을 받아 논문이 완성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후배가 실수를 하면 짝 선배도 같이 책임을 진다. 이 외에도 발표를 맡은 발제자는 세미나 몇 주 전부터 발제지를 미리 사이 클럽에 올려 선배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며 발제지가 더

욱 완벽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학회장 장혜정양은 “용어 하나하나의 нюан스에 따라 발제자의 논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논문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게 된다”며 “발제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역사 교육과 내 백두산 학회는 1989년 당시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 정신이 고조되자 통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88학번 89학번 선배들이 처음 창립한 학회다. 통일 운동이란 실천을 열성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현대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고 자연히 같이 공부하고 의견을 토론했던 학회가 필요했다. 장혜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움직이는 학회”라고 강조한다.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공부도 열심히, 활동도 열심히 한다.

지난 5월 18일엔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

다. 5·18 민주항쟁은 1980년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 시민들을 짓밟은 사건. 백두산 학회원들은 묘역을 참배하고 전야제에 참가하며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에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며 5·18 민주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곤 한다.

이 밖에도 백두산 학회는 그동안 메이데이, 촛불 집회, 맥이더 동상 철거 시위,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많은 사회 운동에 참여를 해 왔다.

다음 주엔 전대일 열사의 어머니로 활발한 노동 운동을 펼치고 계신 이선영 열사를 찾아 보러 간다고도 한다.

학회원인 백미진 씨는 “백두산은 조국의 역사를 배우고 통일을 위해 참 배움을 실천하는 학회”라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학회에 대한 탄탄한 자긍심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7> 엔트로피

교양교육원

이관수 교수의

상식을 뒤집는 책임기



엔트로피

지은이 : 제프리 리프킨

이창희 역

펴낸곳 : 세종 연구원

화려한 무릉도원, 거지의 토대 위에 세워진 리프킨은 유능하다. 과벨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리프킨과 달리 리프킨은 세상에 도움이 된다. 체제파리가 졸음에 쫓는 것처럼, 지난 30년간 리프킨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었다. 기획소송과 강연을 통해 새로운 인공물을 겁 없이 함부로 세상에 풀어놓는 일에 탄족 걸여왔다. 그 덕에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풀어놓을 때, 거처야 할 절차와 기록해야 할 정보가 세상 여기저기서 조금은 늘어났다. 좋은 일이다. 정말로 좋은 일이다. 문제는 그의 의도다.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엔트로피’의 마지막 부분에서 리프킨은 좀 더 균등한 부의 분배, 좀 더 분산된 사회구조, 태양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좀 주장한다. 동의한다. 아이디어의 기원과 사색의 깊이로만 치면 그가 인용한 다른 저자들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열정적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 리프킨의 공이다.

타임지의 소개 기사 제목대로 그가 “과학계에서 가장 중요 받는 인물”이 된 것은 주장 때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주장을 “엔트로피”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때문이다. 맞다.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고, 늘어 나거나 유지된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의 주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구, 역사, 사회, 인간은 모두 그런 의미의 고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자.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받고, 그 만큼의 에너지를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방출하고 있다. 물론 그러니까 지구 내 엔트로피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의 활동 때문에 지구에 엔트로피가 축적된다는 식의 말은 전제부터 틀렸다.

그는 과학용어와 일상단어를 바꾸어 쓴다 엔트로피와 무질서가 같은 것일까?

기묘한 점은 리프킨의 인용문을 분석해보면 그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대목에서 그는 과학용어와 일상단어를 바꾸어 쓴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와 같은 것일까? 엔트로피 불감소 경향을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다보면, 일상생활에서 무질서하게 된다고 느끼는 현상들을 거론하게 된다. 하지만 리프킨은 정의가능하고, 계산가능하고 때로는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인 엔트로피를 무질서로 비유하고는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는 감정도 무질서로 호칭한다. 그리고는 엔트로피와 사회적 무질서를 의도적으로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험란한 것은 리프킨의 수사법이다. 그는 지구가 물질적으로 고립된 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비물질적인 에너지 흐름은 무시한다. 그 래놓고는 비물질적인 세계관을 세계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한다. 엔트로피 증가과정을 물질들이 비슷비슷하게 흩어져 버리는 과정이라고 말했지만, 페이지가 한참 넘어간 다음에는 도시에 몰려 살지 말고, 넓게 흩어져 살자고, 부를 좀 더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주장한다. 그 사이에서 리프킨은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역설하였다.

백년 양보해서 리프킨이 초자연적, 초과학적 통찰을 통해 물리량으로서의 엔트로피와 사회적 무질서 사이의 관계를 깨달았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말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근질적인 사회를 만들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자니!

리프킨의 ‘엔트로피’처럼 리프킨식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책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는 했으니, 이처럼 현대의 혼란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전문가 과정 모집

제1기 브랜드관리 전문가 과정 모집

● 타 단과과정과의 차별점

- 교육부인가 정규 MBA스쿨 내에 있는 최초의 브랜드관리전문과과정 (전문성, 신뢰성 확보)
- 차별화된 강사진 (국내외 브랜드 저명 강사진, USC 박종환 석좌교수 포함)
- 풍부한 브랜드 실무 중심 강의 (브랜드 실전 전문가의 현장중심 강의)
- 브랜드자문 모델 시행(선택가능, 1회 1시간씩 주 2회) 브랜드관련 현업에 대한 자문, 국내 최초)

● 특징

- 동국대 총장명의로의 수료증 수여
-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MBA School) 브랜드MBA 입학식 우대(등록금 감면 혜택)

● 운영 방식

기본 모듈	선택 모듈 (수강생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 6주 브랜드관리 강의	- 브랜드관련 현업 자문 : 1회 1시간씩 주 2회 (총 12회) 자문
- 수업료 200만원	- 자문료: 수업료와 별도로 100만원
- 강의 일정	- 자문 일정: 자문교수와 협의하에 자유롭게 결정
화요일(19:00 - 21:50)	(예, 화요일, 목요일 18:00-19:00)
목요일(19:00 - 21:50)	

● 모집 요강

교육대상 : - 기업체의 브랜드,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부서 종사자
- 광고, 디자인,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등 전문업체 종사자
- 브랜드관리에 관심이 많은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생

교육기간 : 2009년 6월 9일 ~ 7월 16일, 주2회 (총 12회), 매주 화, 목요일 19:00~21:50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경영관 201호

선발방법 : 서류심사

서류 제출방법 : http://mba.dongguk.edu/ 에서 입학지원서 를 다운로드 한 뒤, 이메일 brand@dongguk.edu로 제출

서류 접수기간 : 2009년 5월 31일 (일)까지

합격자 발표 : 2009년 6월 2일 (화)에 개별통보함

등록 기간 : 2009년 6월 2일 ~ 8일

수입료 납부 : 2009년 6월 8일까지 납부 (등록금 납부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예금주 : 동국대)

문의처 :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브랜드관리전문과과정 담당자
Tel) 02-2260-8885 E-mail) brand@dongguk.edu

정성적 마케팅 조사방법론 전문가 과정 모집

마케팅 정성적 연구조사 분야의 최고 석학(Russell Belk, Eric Arnould)을 초빙, 국내최초 특별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마케팅조사의 최고 프 로페셔널이 되십시오.

교육 대상

마케팅 조사회사 및 대기업 마케팅 팀 임직원

교육 기간

2009년 6월 3일 ~ 7월 10일, 주2회(총 10회), 6월 22일 ~ 27일 휴강(Break) 매주 수, 금요일 19:00~21:50

교육 장소

동국대학교 경영관 2층

서류 제출방법

http://mba.dongguk.edu/quail 에서 '입학지원서'를 다운로드 이메일 quail@dongguk.edu로 제출

서류 접수기간

2009년 5월 31(일요일)까지

등록 기간

2009년 5월 1일 ~ 6월 2일

수업료 납부

200만원 입학지원사이트 참조(신한은행 가상계좌 온라인 입금)

문의처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정성적 마케팅 조사방법론 과정 Tel) 02-2260-8884-8885 E-mail) quail@dongguk.edu

특 전

- ▶ 동국대학교 총장명의로의 수료증 수여
- ▶ 조사연구분야에 국내최고 권위의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인증서 수여

중무(忠武)역사탐방강학선발안내

1. 중무(忠武)역사탐방의 취지

본학회는 동국대학교의 중무(忠武)영이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의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고구려 지역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소양을 목적으로 함.

2. 중무(忠武)역사탐방 장의

- 가. 장학 혜택
고구려 역사탐방을 통해 바른 역사관을 제시할 수 있는 1-4학년 재학생을 선발하여 민족의 고토인 고구려 지역의 역사탐방 기회를 부여함.
- 나. 고구려 문화유산 탐방 내용
1. 일정 : 2009년 6월 21일(일)~26일(금) 5박6일
2. 탐방 지역 : 심양, 환인, 집안, 백두산, 대련 등 고구려 유적지.
3. 연수 경비
- 학교 지원 : 1인당 100만원
- 학생 부담 : 1인당 20만원(비자발급비, 보험, 현지집, 공동체비)

3. 지원자격

- 가. 2009년도 1-4학년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에서 선발(9학기 제외).
- 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식이 있는 일반 학생.
- 다. 교내의 해외탐방 장학 기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북미주 연수, 해외탐방 기수혜자는 신청 불가.
- 기타 해외연수 기수혜자는 신청 가능(생협, 108리더스 등).
- 라. 기타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 가능.
- 마.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 없어야 함.

* 중무(忠武)영에 가족과 함께 실질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은 주민등록본부를 제출시 가산점 부여(총 20명 중 10명까지 가산점 부여).

4. 신청 기한

- 가. 서류심사 : 고구려 역사에 관한 보고서 (주제는 하단에 공지)
- 나. 면접심사 : 6월 2일 오후 3시~5시.
- 필경 사유서 발급 가능.
- A, B 타입으로 나눠 진행.

5. 제출서류

- 가. 신청서 1부.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출력된 날인하여 제출.
- 나. 고구려 역사에 관한 보고서 1부.
- 아래 주제 중 택1하여 작성 (분량 및 양식 자유)
- 1) 21세기 지금의 우리에게 고구려역사 알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 2)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했던 이유와 그 내용은?
- 다. 주민등록 등본 1부 (중무(忠武)영에 가족과 함께 실질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학생만 제출).

6. 제출 기한

- 가. 제출기간 : 2009. 5. 26(화) ~ 27(수) 2일간.
- 나. 제출처 : 본관 3층 학생서비스팀 임종민(교내 3043).
- 다. 문의 : 교내전화(3043) 또는 이메일(jbim@dgu.edu).

7. 연락대상지 및료

6월 1일 본교 홈페이지에 발표.

학사지원본부

소외된 국내 및 해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나눔 하이파브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동국대 2009 캠퍼스 나눔 도전

CC=LOVE

“캠퍼스에서 착한 커피 · 쿠키 · 책을 나눠요”
“지구촌 어린이 · 청소년에게 꿈과 사랑을 전해요”
“착한(윤리적)소비로 세상이 행복해져요”

일 시 : 2009. 5. 26(화)~5. 28(목)
장 소 : 팔정도 주변, 동국관, 교내 곳곳

거리 퍼레이드***교정에 피어나는 움직임은 나눔꽃
착한쿠키 · 착한커피 나눔***공정무역 · 사회적기업
착한 책(도서 기증)***의지나눔(Sharewill)***에코파티

즉석 사진(포토존)***희망상자*수제 머핀*나눔 비누*타로 · 사주

나눔 도전은 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주최/주관 : 사랑의 열매, 동국봉사자클럽사단 · 동국108리더스 · 몽골해의 봉사단 누리보듬

후원 : 인태파크도서, 동국대 사회교육원

협력 : 국제아동복지연합, 단국대 몽골학회, 마노빈&캐페(이대점), 아람

다문가게(아름다운커피 · 에코파티메아리), 워커히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지구촌공생회

참여대안(의대·법도 실시)

동국대, 강남대, 경남대, 고려대, 군산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덕성여대, 목원대, 배재대, 상명대, S.crewbar, 서울여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보건대, 전주교육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 02-2260-3051, 3059 http://volunteers.dongguk.edu

대학에서 펼치는 가장 따뜻한 도전, 가장 즐거운 경쟁, “캠퍼스 나눔 도전”

동국참사람봉사단

달하나천강에

흠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사저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아래쪽으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 주말 새벽의 일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대미문의 사건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노무현이라는 고유명사. 한 시대를 풍미하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그 충격의 심연에서 다시 솟아오르고 있다. 그의 신분과 이력, 자살의 시기와 유서, 기타 그와 관련한 많은 팩트들이 솟아오를수록 우리는 애통하고 비감하다.

인간 노무현

풍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장한 아들. 변호사가 되어 소수자를 위해 헌신한 인권운동가. 불의와 모순과 부조리에 은뎀을 던져 싸운 정치 풍운아. 마침내 대통령이 된 이 사람 노무현. 그러나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임기 내내 시끄러웠던 그 존재의 본질이 혁명가였던 우리들의 슬픈 대통령. 퇴임

후에 가족 문제로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도덕적 사망선고를 받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이 사나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불가에 이르기를 악연 중의 악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다. 수많은 세월의 인연을 받은 몸을 현생에서 잘 닦아 더 좋은 영혼으로 진보시키는 게 인생의 주요한 임무라면 그 반대의 가장 나쁜 경우가 바로 자결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더구나 그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던가. 그래서 이 찬란한 오월의 아침이 더욱 쓰리고 불길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여러 기념일들이 대부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슬픈 대통령은 패가망신의 전범이 되었다. 온 가족이 다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혐의를 받는 모양새가 되었다. 사법적인 테크닉도 정치적인 배려도 부족했다. 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으며 책도 읽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절벽

위에서 몸을 날렸다. 애통하다.

“흠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프랑스의 시인 랭보는 이렇게 노래했다. 인간의 모든 도덕적 결함을 날카롭게 지적한 통찰이다. 그보다 흠이 많은 영혼들이 어디 한 둘이라. 그래도 그들은 집기게 살아남아 혹은 영화를 누리고 혹은 뻔뻔하게 나몰라라 한다.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어느덧 적개심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냥감을 찾기에 바쁘다. 세상은 그렇다.

운명과 싸운 이

그러나 오늘 도덕적 자존심과 정의감의 훼손을 견디지 못한 저 순정환 영혼에게 누가 이런 말을 들려주겠는가? 언론이란 원래 그런 거야. 검찰도 원래 그런 거야.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또 금세 잊어버릴 거야. 가족을 생각하고 노사모를 생각해야지. 최근에 그를 만난 지인들은 이심전심으로 이런 말을 했을 터이다.

가슴 아프다. 타협을 모르는 이 고지식한 영혼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은 채 '삶



윤재웅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과 죽음을 한 길'이라며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비장한 최후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다. 자신의 운명과 싸우며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왕이 그러했듯 오빠의 시체를 치우지 말라는 왕명을 어기고 오빠의 시체를 거둬들여 죽음을 당하는 안티고네의 운명이 그러했다. 비극의 주인공들은 현실과 싸우지 않고 운명과 싸우는 것이다. 오월의 빛나는 아침, 전직 대통령의 비극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의 일단이다.

한마음으로 명복 빌자

정치인은 영광과 오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일찍이 천명한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다. 정치인의 양면성을 일러 누구는 교도소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운명이라고도 했다. 삶의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의 방식으로 인생을 마감한 우리의 전직 대통령 노무현. 이제는 더 이상 너와 나를 가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면 한다.

기고

강의평가의 진정한 가치

양심고백을 하자면 그동안 내가 강의평가를 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았다.

또 강의 평가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했다. 이미 과목명을 보는 순간 교수님의 얼굴과 함께 수업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된다. 그리고 클리트로 까만 점들을 줄 세우는 과정이 남는다.

까만 점들은 언제나 양극단과 중용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건의사항란에는 'Ctrl-V' 라는 유용한 도구가 사용되었다.

어느덧 대학생활의 마지막 학기를 맞으면서 강의평가의 도입과 정착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는 우리가 수강신청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전 강의평가결과가 되었다.

내 기준으로 좋은 강의는 철저하게 투입대비 산출량이 높았던 수업들이었다. 쉽게 말하면 쉬운 내용을 쉽게 강의하고 레포트와 퀴즈, 발표 같은 귀찮은 요소들이 없고, 시험문제까지 쉽다면 금상첨화였다. 게다가 좋은 학점까지 받게 되면 그 수업은 정말 Excellent한 수업이었다. 반대로 지루하고 어렵고 날 괴롭히는 수업

은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Poor한 수업이었다. 결국 그것이 내가 교수님을 향해 의명성이라는 베일을 얻어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몸에는 좋은 약은 쓰지 마련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수업들이 그만큼 나를 지적으로 성장시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강의평가 결과를 TV시청률과 비교하면 요즘처럼 막장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독점하는 시대에 다큐멘터리의 설자리가 사라지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본다. 이렇듯 깊은 생각과 고민을 요구하지 않고 말초를 자극하는 방송들이 TV를 장악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강의들은 질적으로 하향평준화 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강의평가를 할 때 그 강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그 강의를 듣는 나 자신의 태도와 노력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결국 후배들과 다른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강의평가 정보를 이용할 권리와 의무의 두 마리 토끼는 우리의 마우스 끝에 달려 있다.

보리수

효심즉불심

(孝心即佛心)

유학자들은 불교를 '무부무군지교(無父無君之教)'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오해다. 부처님은 아버지 정반왕과 이모인 대에도 비구니가 돌아가시자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른 분이다. '부도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저 밝은 태양을 볼 수 없었다'면서 불효자의 집으로는 탁발도 가지 말라고 했다. 이를 '복발법(覆鉢法)'이라고 한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효도를 가르친다. 다음 얘기도 그중 하나다.

옛날 중국의 양보(楊輔)라는 청년이 도를 닦으려고 집을 떠났을 때의 일이다. 사천으로 가던 중에 어떤 늙은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양보가 '무제보살(無際菩薩)의 제자가 되려 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스님은 '보살을 찾아가는 니 차라리 부처를 찾아가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했다. 양보가 '그 부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자 스님은 이렇게 일러 주었다.

"집에 가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걸세. 그분이 바로 부처님 일세."

양보가 집으로 돌아오니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문을 두드려야 어머니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가 옷 입을 새도 없이 담요를 둘둘 말아 몸을 가린 채 신을 거꾸로 신고 뛰어나왔다. '효심이 곧 불심'이란 것을 깨달은 양보는 이후 정성껏 부모를 봉양했다고 한다.

스님들이 아침마다 외우는 장엄법회에 '대보부모십종대은(大報父母十種大恩)'이라는 것이 있다. <부모은중경>에서 유래된 것인데 내용은 이렇다. 1. 임태한 후 열 달 동안 지키고 보호해준 은혜(懷耽守護恩), 2. 출산 때 고통과 수고를 겪은 은혜(臨產受苦恩), 3. 출산 후 모든 근심을 잊어버린 은혜(生子忘憂恩), 4.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빨아 먹여준 은혜(咽苦吐甘恩), 5. 진자리 마른자리를 골라 누여 준 은혜(隨乾就濕恩), 6. 젖을 먹여 길러준 은혜(乳哺養育恩), 7. 더러운 몸과 옷을 깨끗하게 해준 은혜(洗濯不淨恩), 8. 먼 길을 떠나면 항상 걱정해준 은혜(遠行憶念恩), 9. 자식을 위해서는 죄짓는 것도 마다 않은 은혜(爲惡慈業恩), 10. 끝까지 자식을 연민히 여기는 은혜(究竟憐愍恩). 세상천지 어디에 이런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

오월은 은혜를 생각하는 가정의 달이다. 부모님들은 요즘도 등록금 대라고 허리가 휘다. 자식들은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동문칼럼

대화는 실수의 예방접종

살다보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한다. 취업, 결혼, 육아, 주택 심지어 자동차 하나를 살때도 고민의 깊이는 예사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몫이다. 또 선택 후에는 후회가 없어야 한다. 주위의 훈수는 있을 줄 모르나 자의적인 의사이고, 본인의 자율적인 주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후회 투성이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하는 자괴감 뿐이다. 선·후배, 동료들의 훈수를 그저 소주 한잔에 담아 마셔버리는 우를 수없이 반복한다. 생각이 짧아서 또는 별 불일 없는 자존심 때문에 실기하는 경우도 많다. 돌아서면 후회할 일들을 오늘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잘한 일을 찾기 힘들 정도다.

따지고 보면 잘 사는 법은 별개 아니다. 가급적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 올림픽경기에서 선수에게 코치가 주로 하는 말은 "평소 연습때처럼 하라"말이다. 대학입학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말은 "공부한 대로 실수 없이 치르라"는 것이다. 더도 말고 말고 평상시처럼 하라는 것은 큰 일에서는 그만큼 실수가 잦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중요한 승부에서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상

대가 실수를 함으로써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수는 꼬리표 같아서 펠레야 펠 수가 없다. 가급적 줄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수 없는 연습이다. 부단한 '선택'의 연습을 통해서 후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람사는 세상은 '오십보 백보' 인지라, 앞선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단 너무 정형화된 틀 속에서의 배움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굳이 권한다면 친구, 동료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대화의 주제가 진지하거나 가볍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 이야기 끝에 남은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또 하나의 '선택'에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내공이 되어 쌓여있다. 대화 속에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자신의 실수를 줄이는 '백신'으로 작용한다. 실수의 '백신' 예방접종을 사회에서 맞으려면 댓가가 너무 크다. 지금, 이 자리 옆에 있는 동료, 친구와 끊임없이 대화해보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실수의 예방접종이다.

2009년 1학기 글쓰기센터 想象예찬, 동국 글쓰기 공모전 제4회 동국 우수 보고서 공모 제3회 동국 독서와 글쓰기 공모전

2009년 하계[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안내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아리수

논단

‘국영수’ 대신에 ‘사랑’을 가르치는 나라

올해 들어 수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 1위로 자살대국 일본을 훌쩍 넘어섰다.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의 자살소식이 전해진다. 많은 청소년들의 자살원인은 성적에 대한 비판과 스트레스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원인이다. 얼마나 더 많은 학생이 죽어야 우리 교육은 바로 설 것인가?

핀란드의 ‘사랑교육’

한국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09년 1월, 방문한 핀란드의 교육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지난 1월, 교육운동가, 교사, 교수들 정확히 39명이 무리를 지어 핀란드 교육을 돌아보았다.

핀란드 교육과정의 핵심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며 프로젝트 형 수업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없으며 교사가 학교를 결정한다. 일례로 영어를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3차(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교사, 학생이 정하며 프로젝트의 주제는 다양하다.

마침 필자가 참관한 수업에서는 주제가 ‘사랑’이었다. 어떤 그룹에서는 사랑에 대해 여러 종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성과 관련된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배

우고 있었다.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에는 중국의 고대사에서 현대사까지 학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다양한 장차물로 표현하는 발표회를 열기도 한다. 프로젝트 수업에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결합한다. 농부가 와서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은행에서 와서 금융 지식을 가르치기도 한다.

얼마전 한국에서는 일제고사가 논란이 되었지만 핀란드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없으니 중학교2학년까지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도 치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늦되는 아이가 있기때문에 서둘러 ‘열등아’로 낙인찍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스웨덴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이 존재하지만 교육과정은 도달해야 할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있다. 검정인 교과서도 없다. 성적은 8학년이 되어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고급 학교에 진학할 때 활용한다. 5학년과 9학년에 일제 고사가 있고 5학년은 임의적이지만 9학년은 의무적이다.

팀 작업의 인도자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벗어나서 팀의 작업을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핀란드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2년 내에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학습의 재료와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교사의 수준은 석사이상으로 높으며 지원자는 많다.

학교서 시작하는 민주주의

또한 이들은 학습에 있어 사회적 소통 능력(social communication competence)을 중시한다.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프리젠테이션하고 언어로 소통하고 팀별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키운다. 계획을 하고 팀을 만들고 팀 안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1주일에 1시간은 사회적 소통 능력을 주제로 별도의 수업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업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소통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스웨덴의 교육에서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다. 이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란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을 뛰어넘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관용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 같다.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은 단적으로 국민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스웨덴에는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절대비교는 힘들 수 있다. 우선 조세부담율이 40%로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으면 핀란드나 스웨덴학생들은 자국의 높은 담세율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세금은 내야한다고 생각하거나 자국체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사교육비를 포함시키면 그 돈에 못지 않다. 한국은 핀란드에 비해 국민소득이 절반수준이고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보여주는 ‘교육 지옥’을 내버려둘 순 없지 않나? 우리나라 교육이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동과 지원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나라, 도시에 학업이 전무하고 질 좋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아래 평생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핀란드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교육에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꿈꾼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사설

동국정신 보여준 박영석 동문

우리대학 동문 박영석 대장이 지난 20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반에 성공했다. 역사상 3번째 성공이다.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스는 해발 6500m에서 8400m까지 약 2000m에 걸쳐 수직절벽이 이어진다. 마칼루 서벽, 로체 남벽과 함께 가장 오르기 힘든 코스라고 한다. 지금까지 남서벽 루트를 개척한 팀은 영국과 구소련 단 두 팀밖에 없었다. 이번 등반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영석 동문의 에베레스트 남서벽 루트 개척은 산악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는 남서벽에만 다섯 번 도전했다. 1991년 첫 등반 이후 18년간의 기나긴 도전이었다. 가족 같았던 동료 4명을 잃기도 했다. 그의 완성이 더욱 절실하고 가치있게 느껴지는 이유다.

박영석 대장은 지금껏 동국의 용맹·정진을 몸소 보여줬다. 이미 그는 인류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이룬 바 있다. 산악그랜드 슬램은 세계 8천m급 14좌와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남·북극점, 에베레스트)을 모두 등반하는 것으로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기록이다. 박영석 동문은 1993년 아시아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성공했다.

2001년에는 히말라야 8천m이상 고봉 14좌를 완등했다. 7대륙 최고봉 완등(2002년) 그리고 남극점(2004년), 북극점(2005년)까지. 말 그대로 ‘인류최초’였다.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도전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거둔 결과였다. 2005년 북극점 도전에는 본지가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연재 보도하기도 했다.

그의 모교사랑은 각별하다. 개교 100주년을 한해 앞두고 ‘동국’이란 이름을 드높이며 산악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개교 100주년이면 2006년에는 히말라야 횡단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새백년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뒀었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이후에는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영석 탐험대장 산악 장학금’이라는 명칭의 장학금이였다. 당시 박영석 동문은 “1% 가능성에 도전하는 후배들을 위해 이번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교 100주년과 함께 그랜드슬램과 에베레스트 횡단에 성공하며 용맹·정진하는 동국정신을 한국, 세계에 떨친 박 동문. 이번 등정 성공으로 그의 개척정신과 모교사랑이 다시금 동악을 감동시키고 있다.

메아리

오체투지(五體投地)

▲오체투지는 불교신자가 삼보에 올리는 큰절을 말한다. 고대 인도에서 행해지던 예법 가운데 상대방의 발을 받드는 접족례(接足禮)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불·법·승 삼보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불교에서 교만을 떨쳐버리고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예법이다.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기 때문에 오체투지란 이름이 붙었다.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외치는 오체투지 순례단이 21일 종착지인 조계사에 도착했다. 충남 공주 계룡산에서 출발한 긴 여정이었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는 까맣게 그을린 모습이었다. 순례단은 호소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평화의 길’을 잃어 버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은 넘치지만 연민의 눈물은 찾아보기 힘들니다”라며 메말라가는 시대의 안타까움을

토포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려운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과 눈물로 국민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법의 이름으로 힘의 정치를 펴려 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순례단 중앙상가대 학생들, 그리고 정토회 행사 수백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우비를 입고 아스팔트에 엎드렸다고 한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 21조가 유린되고 있다. 촛불집회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집회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 지난 달 있었던 등록금 시위에서도 수십명의 학생들이 끌려갔다. ‘공공질서 위협’, ‘장소 경합’ 등이 이유다. 이미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경우는 28건으로, 지난 1년 동안 금지한 31건과 비슷하다. 앞으로도 수많은 집회가 ‘사회질서 위협’이라는 미명

아래 가로막힐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러나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내 얘기 좀 들어 주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은 기본이다. 오체투지 순례단의 목소리도 바로 그것이다. 기본에 충실 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정신을 오체투지 순례단은 행동으로 보여줬다.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오체(五體)를 땅과 닿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인간의 어리석음을 속죄했다. 정부가 무엇인가, 국민을 대신하는 조직이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하더라도 귀담아듣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닌 믿고 있는 땅을 저버리는 것이다. 시국이 이래서인지 온 국토를 뚫고 맞대며 걸은 오체투지 순례단의 숭고한 실천이 더욱 크게 가슴을 울린다.



정동훈 편집장 gfd1226@dongguk.edu

만평을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비롯해 세상에는 많은 울고 웃을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유독 수면위로 튀어 올라 논쟁거리가 될 만한 기사가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다루기 민감해 쉽사리 활자를 통해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런 민감하고 이픈 부분들을 약간의 풍자를 통해 가벼이 웃어넘길 수 있게 승화하는 것이 만평가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신문에 실려 들어와 글을 통해 독자와 소통할 줄 알았지,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다소 걱정이 앞섰다.

만평은 나에게 생소한 부분이다. 하지만 조금만 둘러 생각해보면 붓과 펜이라는 재료만 다를 뿐 표현한다는 면에선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내 만평을 통해 독자들이 미술을 머금으면서도 잔잔한 여운과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



백선이 수습기자 littleche@dongguk.edu

만평

백선이 수습기자 littlech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동훈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성적우수장학금, 모범장학금 분리 시행 안내

1. 변경취지 :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성적우수장학금과 모범장학금으로 분리하여 시행 함으로써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2. 성적우수장학금 가. 신청방법 : 성적을 100% 반영 하여 석차순에 의해 선발을 하므로 별도의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발인원, 장학금액 : 단과대학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함 다. 자격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 12학점),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2) 2009-2학기 복학예정자는 제외

3. 모범장학금 가. 대상 :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해당 대상자를 선발 함 나. 선발인원, 평가기준, 장학금액 : 단과대학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함 다. 신청방법 : 대학별 안내사항 참조 라. 신청기간 : 2009.5.15(금)~5.29(금)

▶성적우수 장학금 변경사항

Table with 4 columns: 구분, 현재, 변경, and sub-categories for personnel, selection method, and amount.

4. 대학별 장학금 신설 현황

Table with 4 columns: 대학, 성적우수장학, 모범장학, 기타

* 추후결정 예정인 대학은 해당대학 학사운영실에 확인 요망

5. 시행시기 :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09-1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2009-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지급 됨)

6. 기타 : 가. 성적우수장학금과 모범장학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 함. 이중수혜 대상인 경우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음. 나. 미등록 휴학생의 장학금(교내장학)은 복학 시 이월하여 지급이 가능 함 다. 전과신청자의 장학금은 전과를 희망하는 단과대학의 선발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영어강좌별 우수장학 신설 안내

2009-2학기 영어강좌별 우수장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취지 : 영어강좌 수강을 독려하고 장학금지급을 확대하여 학업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2. 장 액 액 : 영어강좌 우수장학

3. 장학금액 : 가. 강좌 당 수석 : ₩300,000 나. 강좌 당 우수 : ₩150,000

4. 대 상 : 영어강좌별 수강인원의 10%이내

< 재인대상 >

가.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 강좌 나. 타대학(분교포함) 소속 대학생 다. 8학기 이상인 자 라. English Conversation I, English Conversation II, 마. 영어트랙 강좌 등

5. 자격기준

가. 1인당 3강좌까지 지급 가능 함 나.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 함 다.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라. 동.하게 계절학기 성적입력시는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음 6. 선발방법 : 성적입력 시 대상자 선발 함 7. 지급방법 : 등록금에서 감면처리되어 지급 함

강좌별 수석장학 시행 안내

2009-2학기 강좌별 수석장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장 액 액 : 강좌별 수석장학

2. 장 액 액 : 1인당 ₩150,000

3. 수혜대상 : 매학기 강좌별(전공, 교양) 우수한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지급 함 (단,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의 강좌, PASS과목, 교육실습, 현장실습, 타대학(분교포함) 소속 대학생, 8학기 이상인 자는 제외 함)

4. 자격기준

가. 강좌별(전공, 교양) 우수자 1명 나. 1인당 3강좌까지 지급 가능 함(단 4학년(8학기) 재학생은 제외) 다.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 함 라. 동.하게 계절학기 성적입력시는 장학생을 선발을 하지 않음 마.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5. 선발방법 : 성적입력 시 대상자 선발 함

6. 지급방법 : 등록금에서 감면처리되어 지급 함

학사지원본부

대동제,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를 펼치다



“최고 돌+아이? 축제를 즐겼을 뿐”



아나운서를 꿈꾸는 돌+아이 김명희(지교4) 군을 만나다.

목격대동제의 하이라이트 ‘돌+아이 콘테스트’는 동국인들의 많은 환호와 함께 막을 내렸다. 총 6명이 참가한 이번 콘테스트에서 당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참가자는 온몸을 붉게 물들인 동국 최고 돌+아이 김명희군이다. “열정이 있다면 즐겨라. 한번뿐인 대학생활 평범하게 보내기엔 너무 아쉽지 않은가” 동국 최고의 돌+아이 김명희군을 만났다.

김명희(지리교육4)군의 평소 모습은 돌+아이란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이다. 그 누구라도 김군의 평소 모습을 본다면 돌+아이란 생각을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목격대동제에서 그는 진정한 돌+아이다운 면모를 보였다. “평소에도 축제는 즐겨가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축제에서도 저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돌+아이 콘테스트에 참여했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김군. ‘돌+아이 콘테스트’에서 온 몸을 붉게 물들이고 관중들과 호흡하며 마지막 소주 퍼포먼스까지 진정 돌+아이다운 면모를 보여줬던 그는 “그냥 내가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을 보여 줬는데 우승까지 하게 됐다”며 덧붙여 “그날 소주 퍼포먼스 때문에 소주를 뒤집어 쓴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옷을 벗고 퍼포먼스를 했을때 장파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살이 많이 빠져 뼈가 드러나는 몸을 보여준 점이 조금 부끄러웠다”며 “몸이 좋은 상태에서 벗었어야 환호가 더 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국 최고 돌+아이란 칭호를 얻게 된 김군의 인생 목표는 개그맨이 아닌 아나운서가 되는 것. 그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지금은 기본 성격인 토익과 대학 평점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아나운서가 된다면 시사분야보다 예능분야에 진출하고 싶다고 한다. 전 아나운서인 손석희 교수처럼 차분하고 냉철한 이미지의 아나운서가 아닌 예능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다. 김군은 “현재 예능분야에서 많은 끼를 펼치고 있는 아나운서들처럼 나 또한 내 끼를 맘껏 펼치고 싶다”며 예능 분야에 진출하길 원하는 이유를 밝혔다.

돌+아이 그리고 아나운서란 꿈의 양면성을 가진 그. 열정과 패기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의 두 번째 도전. 아나운서의 꿈이 이뤄질지 바란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채현선 작가의 세상 느끼기

4. 너에게 기대어 |



며칠 전, 친구의 기일이러 지방에 다녀왔다. 나의 절대적인 지지자였고, 무엇이든 온전하게 주는 법을 알았으며, 내게 꼭 맞는 단 하나의 ‘마음열쇠’ 같은 아이였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병원 벤치에서 내 어깨에 기대어오던 온기가 스쳐가곤 한다. 생전의 그녀에게 너무 많은 걸 받았기에, 나는 꼭 그만큼을 잃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앓이를 했다. 그녀의 죽음이 내 마음을 가르는 또 하나의 스크래치로 남았다.

살아가는 동안 타인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건, 그녀처럼 무엇이든 온전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열 개를 주면 적어도 세 개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무수한 스크래치의 캡슐을 안고 살아간다. 고통은 늘 그곳에 있고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비난을 쏟아

내고, 단점들을 들춰내며 내가 틀렸다고 말할 때마다 캡슐은 하나씩 늘어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그 앞에서 나는 단지 약자일 뿐,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납작 엎드린 패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쓰는 모든 글은 가슴 한편의 캡슐에서 기인한다. 그 속에서 꿈을 꾸고 밥을 먹으며 문장들을 써내려간다. 슬픔이나 환희를 느낄 때마다 나는 한 뼘씩 자랐고, 한 뼘씩 깊어졌다. 그러니 내가 쓰는 글들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며, 내가 얻는 모든 결과물 또한 순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안에서 타인과 나는 캡슐로 이어진 가늘고 투명한 그물로 맞닿아 있다. 나는 ‘너, 혹은 당신’, 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타인을 바라보고, 그들은 타인인 ‘나’를 바라본다. 캡

슐이 직조해낸 아픈 무늬를, 무심히 감내해야 할 그런 삶의 자국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누군가의 비난의 말과 잘못된 행동이, 곁에 있어도 그리운 누군가의 존경스럽고 깊은 사유가, 또 누군가의 우아하게 베푸는 방식이 분명 마음속에서 고통과 환희의 황체를 형성하는 것이라 믿는다. 다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얻는가는 자신의 몫일 것이다. 꼭 맞는 단 하나의 ‘마음열쇠’ 같은 게 없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변함없이 스크래치 캡슐을 만들고 소설을 쓰며 살아갈 것이다. 소박한 리듬에 맞춰 슬로우슬로우 쿵쿵, 내 앞에 펼쳐진 무한한 세계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이다.

너에게, 혹은 당신에게 기대어.
문화예술대학원 재학 중 소설가

미술대학 과제전, 문화관 동국갤러리서

미술대학은 각 학과에 걸쳐 문화관 동국갤러리에서 과제전을 연다.

이번 과제전은 1학기 동안 미술대 학생들의 과제를 전시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학년이 모두 참가하는 이

번 전시회는 서양화과(5.15~20), 한국화과(5.21~26), 불교미술과(5.28~6.3), 조소과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졸업한 동문 및 관련분야 예술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관람할 예정이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분야별 인디스트 모집



서울프린지네트워크에서 행정지원, 거리지원매니저, 거리홍보, 공연지원 등 분야별 인디스트(자

원활동가)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2일 2시까지이며 면접공고 및 일정 최종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축제 기간 전일·종일 활동가능한 사람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사전교육과 사전활동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사람 또한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29일까지이며 7월부터 교육과 사전활동이 진행된다.

지원방법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seoulfringe.net>)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년 5월 11일 ~ 5월 17일

단위기금

서라벌의료(동문, 6만원) 석장원(동문, 5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800만원) 현대자동차 성년점(기업/재단, 5만원)

동국사랑저금통기금

동화메탈(기업/재단, 100만원) 오현옥(동문, 100만원) 청안사(불교신도, 2만원) 최용환(동문, 100만원)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이규옥(의료원/직원, 1만원) 이철은(동문, 2만원) 임선화(불교신도, 2000원) 홍순애(불교신도, 1만원)

장학기금

국민은행(기업/재단, 500만원) 김여진(동문, 1만원) 김영진(대학원/경영, 400만원) 김용주(동문, 400만원) 박지현(일반/기타, 5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422만4000원) 신철스님(스님, 100만원) 여무의(대학원/불교, 10만원) 옥태일(동문, 1만원) 이경(동문, 3만원) 조현하(동문, 1만원) 채윤미(일반/기타, 1만원) 최보영(동문, 1만원) 혁명스님(스님, 100만원)

특정목적기금

(주)고리(기업/재단, 100만원) 김상필(경주병원/직원, 2만원) 김혜정(동문, 3만원) 박문고(동문, 2만원) 유기환(동문, 1000만원) 이규옥(의료원/직원, 2만원) 이남순(일반/기타, 1만원) 이영호(대학원/경영, 100만원) 전영도(경주병원/직원, 1만5000원) 정각원(불교사찰, 100만4450원) 정승채(동문, 20만원) 최고위차안정책과정(동문, 2000만원) 허선스님(스님, 100만원)

기금 참여 방법

■ 동국발전기금 (예금주: 동국대학교) 신원은행 140-000-649193 SC제일은행 107-10-119210 농협 300-17-003822

■ 인터넷입금 발전기금 홈페이지(love.dongguk.edu) 접속 후 작성

■ 세제 혜택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발전기금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골자

- 1)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 2)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 3)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비처리

세제 혜택 내용

- 1) 개인 기부 :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 2) 법인 기부 (주식회사, 법인 단체) :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단, 2009년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 3) 기부로 인한 연간 소득별 절세 효과(2005년도 기준)

기부금	연간 소득 금액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45천만원
1백만원	170,000	170,000	260,000	350,000	350,000
2백만원	340,000	340,000	520,000	650,000	700,000
3백만원	510,000	510,000	780,000	945,000	1,050,000
4백만원	684,250	680,000	1,040,000	1,215,000	1,400,000
5백만원	858,500	850,000	1,300,000	1,435,000	1,750,000
6백만원	1,032,750	1,020,000	1,560,000	1,695,000	2,100,000
7백만원	1,207,000	1,190,000	1,820,000	1,965,000	2,450,000
8백만원	1,381,250	1,360,000	2,080,000	2,215,000	2,800,000
9백만원	1,555,500	1,530,000	2,340,000	2,475,000	3,150,000
1천만원	1,729,750	1,700,000	2,600,000	2,735,000	3,500,000

만원의 행복... 단원이 滿員을 행복하게 합니다. 단원으로 시작하는 동국대학교의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는 여러분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원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정학사업/ 캠퍼스 인프라개선/ 연구지원/ 우수교원초빙/ 최첨단 의료환경개선 / 글로벌인재육성사업 등 학교발전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사용되어 줍니다

잠깐 !!

만원은 큰 돈이 들어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동국대학교와 함께 나눔을 시작하세요

만원사업 문의: (02-2260-3300, 3394-5, 8882)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년 5월 11일 ~ 5월 17일

단위기금: 서라벌의료(동문, 6만원) 석장원(동문, 5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800만원) 현대자동차 성년점(기업/재단, 5만원)

동국사랑저금통기금: 동화메탈(기업/재단, 100만원) 오현옥(동문, 100만원) 청안사(불교신도, 2만원) 최용환(동문, 100만원)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이규옥(의료원/직원, 1만원) 이철은(동문, 2만원) 임선화(불교신도, 2000원) 홍순애(불교신도, 1만원)

장학기금: 국민은행(기업/재단, 500만원) 김여진(동문, 1만원) 김영진(대학원/경영, 400만원) 김용주(동문, 400만원) 박지현(일반/기타, 5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422만4000원) 신철스님(스님, 100만원) 여무의(대학원/불교, 10만원) 옥태일(동문, 1만원) 이경(동문, 3만원) 조현하(동문, 1만원) 채윤미(일반/기타, 1만원) 최보영(동문, 1만원) 혁명스님(스님, 100만원)

특정목적기금: (주)고리(기업/재단, 100만원) 김상필(경주병원/직원, 2만원) 김혜정(동문, 3만원) 박문고(동문, 2만원) 유기환(동문, 1000만원) 이규옥(의료원/직원, 2만원) 이남순(일반/기타, 1만원) 이영호(대학원/경영, 100만원) 전영도(경주병원/직원, 1만5000원) 정각원(불교사찰, 100만4450원) 정승채(동문, 20만원) 최고위차안정책과정(동문, 2000만원) 허선스님(스님, 100만원)

기금 참여 방법

동국발전기금 (예금주: 동국대학교) 신원은행 140-000-649193 SC제일은행 107-10-119210 농협 300-17-003822

인터넷입금 발전기금 홈페이지(love.dongguk.edu) 접속 후 작성

세제 혜택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발전기금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골자

세제 혜택 내용

기부금	연간 소득 금액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45천만원
1백만원	170,000	170,000	260,000	350,000	350,000
2백만원	340,000	340,000	520,000	650,000	700,000
3백만원	510,000	510,000	780,000	945,000	1,050,000
4백만원	684,250	680,000	1,040,000	1,215,000	1,400,000
5백만원	858,500	850,000	1,300,000	1,435,000	1,750,000
6백만원	1,032,750	1,020,000	1,560,000	1,695,000	2,100,000
7백만원	1,207,000	1,190,000	1,820,000	1,965,000	2,450,000
8백만원	1,381,250	1,360,000	2,080,000	2,215,000	2,800,000
9백만원	1,555,500	1,530,000	2,340,000	2,475,000	3,150,000
1천만원	1,729,750	1,700,000	2,600,000	2,735,000	3,500,000